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경봉 스님(2)

만공, 막중한 일을 어찌 서신으로 전할 수 있겠는가

경봉,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만공, 수좌가 깨달은 경지를 잘 각찰하시오

1927년 11월 20일 새벽, 방안의 촛불이 출렁이는 것을 보고 크게 깨달은 경봉 스님은 용성, 한암 스님은 물론 만공 스님에게도 오도송과 보임(保任)의 길을 묻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만공 스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끝내 묵묵부답이었다.

어느 날 경봉 스님은 서울 선학원으로 만공 스님을 찾아가 따져 물었다. 그러자 만공 스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막중한 일을 어찌 서신으로 전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경봉 수좌가 깨달은 경지를 잘 각찰(覺察; 깨달아 살핌)하시오."

이에 경봉 스님은 만공의 팔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팔목의 급소를 아프게 눌렀다. 만공 스님은 "아야!" 하고 소리를 냈지만, 잠시 후 미소를 지었다.

당대 고승들과 지속적 서신 교환
깨달음 얻은 이후에도 탁마 계속

1912년 해담(海曇) 스님으로부터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은 뒤, 통도사 불교전문강원에 입학한 경봉 스님은 해인사 퇴설당, 금강산 마하연과 석왕사 등 이름난 선원을 찾아다니면서 정진하였다. 그러던 중 김천 직지사에서 만난 만봉(萬峰) 스님과의 법담에 힘입어 '자기를 운전하는 소소영영(昭昭靈靈)한 주인'을 찾을 것을 결심하고, 통도사 극락암으로 자리를 옮겨 3개월 동안 장좌불와(長坐不臥)하면서 정진을 계속하였다. 이와 함께 화엄산림법회에서 법주(法主)겸 설주(說主)를 맡아 철야로 불사하고 정진하던 중, 4일 만에 천지간에 오롯한 일원상(一圓相)이 나타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물(一物)에 얽힌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다시 화두를 들어 정진하다가 1927년 11월 20일 새벽, 오도송을 읊었다.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我是訪吾物物頭)/ 눈 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目前卽見主人樓)/ 껄껄껄, 이제야 만나 의혹 없어지니(呵呵逢着無疑惑)/ 우담바라 꽃 빛이 온 누리에 흐르네(優鉢花光法界流)."

경봉 스님은 당대의 여러 고승들에게 오도송을 보여주고 점검을 겸한 깨달음 이후의 공부에 대한 가르침을 기대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대부분 답장을 받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서신을 통한 탁마(琢磨)를 이어갔다. 그런데, 유독 만공 스님만은 답장이 없었기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답장을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만공 스님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라 직접 만나서 대답하려 했다고 시치미를 뗀다. 여기서 '막중한 일'이란 일대사(一大事) 즉, 화두를 타파하여 깨달음을 얻는 일을 뜻한다. 하지만, 깨달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을 하고, '닦음이 없이 닦는(無修之修)' 오후(悟後)공부에 대해 다시 첨언한다는 것이 이미 평지풍파(平地風波)와 같은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만공 스님은 '지금 당장 말해 달라'는 경봉 스님의 닦달에 마지못해 "깨달은 경지를 잘 각찰(覺察)하시오"라는 답을 하고 만다.

이에 경봉 스님은 만공 스님의 팔목을 누르는 지혜작용으로 자신의 견처(見處)를 다시 한 번 점검받으며, 한 마디 일러줄 것을 청한다. 하지만 만공 스님은 여전히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미소로 긍정하며 말을 아낀다. 말 밖에 따로 전해지는 깨달음에 대해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깨달음 이후의 보임공부 역시 말없는 언행일치의 실천행인 불행수행(佛行修行)만이 기다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사마타·위빠사나 함께 닦아야 온전한 수행"

간화선의 리더들 ⑩ 마음닦기선원 무산본각 거사

12월 2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목포행 무궁화 열차를 타고 도착한 목포역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목포시 상동 시내의 작은 빌딩 2층에 자리 잡은 마음닦기 선원에 도착하니 무산본각(無山本覺) 이용현(55) 거사와 제자인 양산, 승산 거사가 반갑게 맞아준다. 따뜻한 보이차를 마시며 무산 거사의 수행담을 들어보았다.

"오늘날 북방 대승불교권에서는 '사마타(samatha, 止)'를 중심으로 한 수행법을 채용하고 있는 반면, 남방불교권에서는 '위빠사나(vipassana, 觀)' 위주의 수행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관된 수행체계가 부분적인 것으로 나눠지면서, 완벽한 수행시스템이 그 본래의 기능과 목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마타와 위빠싸나를 함께 닦는 전통적인 붓다의 지관쌍운(止觀雙運) 수행법을 온전하게 복원해야 합니다."

무산 거사는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반드시 함께 닦아야 수행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견해는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한 바탕에서 이뤄진 결론이었다. 자칫, 화두삼매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은 간화선과 선정의 힘이 약한 '마른 위빠사나'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위빠사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와 관, 적(寂)과 조(照),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는 수행이 필수적이란 것이다.

1951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무산 거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주)선경 테헤란 지사장과 주(駐)이란 한국상사협의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테헤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1980년부터 전업 수행자가 되었다. 숭산 스님의 참선법어집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을 번역하며 간화선 공부에 매진한 그는 1989년 어느 날 새벽, '야반삼경목계성(夜半三更木鷄聲:한밤 삼경의 나무 닭 소리)'이라는 말에 문득 공안을 타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곧 참된 경계가 아님을 깨닫고 재발심해 호흡 공부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하였다. 그 후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정통적인 붓다의 지관쌍운 수행법의 복원과 체계화를 시도했다. 마음닦기 선원에서 수행자를 지도하며 펴낸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 <마음닦기>, <공짜입니다> 등은 자신의 수행경험과 수행법 지도를 바탕으로 펴낸 책들이다.

무산 거사가 26년간의 구도여정 동안 정리한 지관쌍운 수행법은 <불설대안반수의경>의 체계와 <청정도론>의 37조도법(助道法)에 근거한 것으로 수(數)·수(隨)·지(止)·관(觀)·환(還)·정(淨) 등 6단계로 나뉜다. 즉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모으고 그 숨의 수를 헤아려 마음을 집중하는 수식관(數息觀)인 '수(數)' ▲들숨과 날숨을 고요히 지켜보며 알아차리는 상수관(相隨觀)인 '수(隨)' ▲마음이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한 곳에 응집되어 삼매에 이르는 '지(止)'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체 대상세계의 실상(實相)을 보는 '관(觀)'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함께 운용(定慧竝修)하여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와 일체 대상세계의 일반적인 특성을 체득하는 경계인 '환(還)' ▲자기의 인식과정에서 행(行, sankhara)의 작용의 단멸을 이루어 여실지견(如實知見)을 얻는 인식의 청정에 이르러 열반을 성취하는 '정(淨)'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6단계 수행을 통해 증득한 깨달음이란 어떤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삼매(三昧) 체험을 넘어 삼매와 위빠사나를 함께 닦아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의 인식과정에서 행(行)의 작용이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도(道)의 명지(明知)'를 성취한 경계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 경계에 이르면 일체 대상을 개념화하여 취착하게 하는 '빠빤짜(papancha, 개념화)의 작용'이 진정되어 온전한 여실지견을 성취한 열반에 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짓는 자(빠빤짜의 작용)'에 의해 과보가 생기며 윤회한다고 하셨고, 집짓는 자를 알아차려 윤회를 끊으셨습니다."

무산 거사는 '도의 명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색·수·상·행·식의 인식과정에서 가치와 의도를 부여하여 개념화하는 행의 작용인 '빠빤짜의 작용'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즉, 선(禪)에서 강조하는 분별심, 조작심, 망상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싸마타의 힘(선정력)'과 예리한 '위빠사나의 힘(주시력)'이 함께 구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의 작용이 진정되면 우리의 인식 주관이 개념화하여 표상한 빤냐띠(Pannatti, 관념)가 해체됩니다. 즉 오온의 빠라마따(Paramattha, 성품)를 보게 됨으로서 자재현전하는 대상세계의 참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여실히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법은 온갖 분별·망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여실하게 보라는 선(禪)의 가르침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 "밖으로는 일체의 대상세계를 반연하지 않고, 안으로는 의식의 자기지향성조차 없는 순수의식으로 그저 보고, 듣고, 알고, 사고할 뿐으로 여여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의 체험도 선(禪)이 말하는 평상심의 삶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가 화두에 집중하는 것을 사마타에, 성성적적하게 관조함을 위빠사나에 각각 대비한 것처럼, 간화선과 위빠사나에 본래부터 지(止)와 관(觀)의 원리가 오롯이 녹아있음에도 수행자들이 한쪽에만 집착한 나머지 수행법의 분열과 대립이 일어났을 뿐이다. 그는 "오늘날에 맞는 수행법의 체계화가 시급하다"며 "조만간 <무산 무문관>을 출간해, 무문관 48칙의 공안을 근본불교의 용어로 해석하고 공부법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61)281-3035

목포=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daum.net

26년 구도과정에서 몸소 체득한 '지관쌍운법' 제시
간화선·위빠사나 장점 모아 6단계 수행법으로 정리

무산 거사의 지도를 받으며 '지관쌍운법'을 체득하고 있는 불자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철야 염불정진**=만일염불결사회는 12월 15일 오후 8시부터 성남 정토사에서 철야 염불정진 법회를 연다. 20~22일, 3일간은 동지 3일 기도정진도 한다. (031)723-9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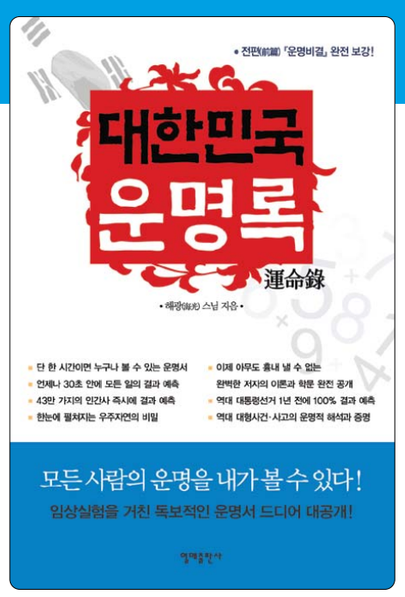
●**금강경 독송 및 바라밀정진**=서울 불광사는 동안거 결제기간동안 매일 오전 10~12시 불광교육원 법당에서 〈금강경〉 독송과 바라밀 염송을 수행한다. (02)417-2551

●**위빠사나 주말수행**=천안 호두마을은 12월 14~19일, 21~23일, 12월 28일~1월 2일 사사나 스님의 지도로 위빠사나 주말수행을 실시한다. (041)567-2841

●**참선 및 삼천배 정진**=정안사 묘심선원은 12월 15일 오후 9시부터 참선 철야정진을 갖는다. 21일 오후 1시 아비라 기도,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3000배 정진도 실시한다. (02)523-8005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 합니다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자 격 : 현재 사암이나 포교원을 운영 중인 스님, 법사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할 분 스님이 되고자 하는 50세 이하의 불자

특 전 : 포교원, 사암의 운영에 전폭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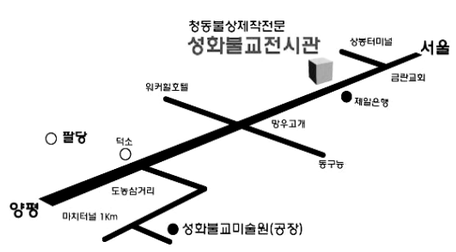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청동불상 제작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